

2020. 8. 21.

재난예방과

일일 언론보도 현황

순 번	제 목	언론사	총계
1	여주소방서, 태풍 ‘바비’ 대비 행동요령 안내	하나로신문 여주신문 팔당유역신문 중부뉴스	4 건
2	여주소방서, 무더위 속 말벌 벌집 제거 ‘안간힘’	경기일보 선경일보 하나로신문 여주신문 팔당유역신문 한국공보뉴스 미디어연합 중부뉴스 남한강뉴스 경인투데이뉴스	10 건
3	여주소방서, 여주소방서, 펜션 소방안전 컨설팅 운영	선경일보 하나로신문 여주신문 팔당유역신문 중부뉴스 한국공보뉴스 미디어연합 경인투데이뉴스	8 건



경기도소방
여주소방서

인쇄하기

인쇄하기

창닫기



HOME 뉴스와생활 정치·행정

여주소방서, 태풍 '바비' 대비 행동요령 안내

박관우 기자

승인 2020.08.25 16:07



제8호 태풍 '바비(BAVID)' 북상 중 태풍 시 국민행동요령



태풍 예보시

- ✓ 배수시설, 축대, 용벽 등 주변은 미리 점검하세요.
- ✓ 산사태 위험지역,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.
- ✓ 하천 및 저지대에 주차했다면 고지대로 이동하세요.
- ✓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설치물은 단단히 고정됐는지 확인하세요.
- ✓ 유리와 창틀사이 빈틈을 차단하고 및 단단히 고정합니다.



태풍 특보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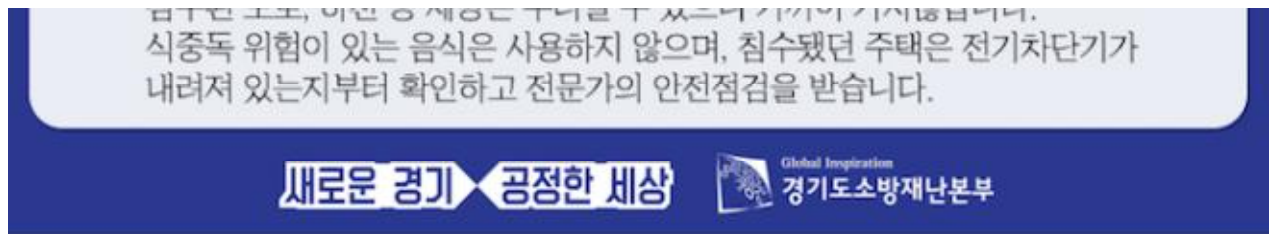
- ✓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 자제하며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합니다.
- ✓ 맨홀, 지하차도,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습니다.
- ✓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.
- ✓ 대피할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.



태풍 이후

- ✓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합니다.

최스핀 드루 워터 드 레바오 모니지 스 이온 카찌이 카찌아스 이리



여주소방서(서장 염종섭)는 25일 8호 태풍 바비(BAVI)의 북상으로 강풍 및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.

태풍 대비 행동요령으로는 ▲TV와 라디오, 인터넷, 재난문자를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▲상습 침수지역 및 산사태 위험지역은 안전한곳으로 대피 ▲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 접근금지 ▲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 금지 ▲호우와 태풍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접근 금지 등이다.

소방서 관계자는 "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지켜주기 바라며,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."고 말했다.

박관우 기자 pkw3930@hanmail.net

<저작권자 © 여주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

경기일보

HOME > 사람들 > 사람들

여주소방서 말벌 습격 예방과 안전수칙 당부

☎ 류진동 기자 | Ⓞ 승인 2020.08.20 15:40



여주소방서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말벌 개체가 증가하고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집 신속 제거활동 전개와 함께 야외활동 시 말벌공격에 따른 안전수칙 피해 요령 등을 당부했다.

소방당국은 최근 말벌 개체 수 증가에 따른 긴급출동건수가 급증하면서 현장활동 대원들이 신속한 벌집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말벌은 8월 중순부터 활동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과 함께 긴 장마 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1일 15회로 크게 증가하면서 다음 달 말 추석 전까지 지속하면서 신고와 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.

벌 쏘임 피해 예방을 위해 집주변과 처마 등을 확인하고 제초작업 등 야외활동 시 주위 벌집 유무를 살피고 자극적인 강한 화장품과 향수 등을 피하라고 당부했다.

특히 말벌은 검고 어두운 색을 천적으로 여겨 공격성을 나타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흰색과 무채색 계열의 옷을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.

벌 알레르기가 걱정스러운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벌 독에 대한 항원·항체 반응을 검사해 양성일 경우 의사의 처방을 권고했다.

박광덕 여주소방서 월송안전센터장은 “벌 쏘임 사고는 주로 말벌로 인해 발생하는데 장수말벌은 공격성이 강하며 한 번에 쏘는 독의 양이 일반 벌의 수십 배에 달하고 신경계에 공격을 받으면 생명에 위험 할 수도 있다”라며 “위험한 말벌 벌집을 발견하면 119로 신고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여주=류진동기자

저작권자 ©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류진동 기자

홈 > 뉴스 > 뉴스 > 경찰/소방

염종섭 여주소방서장, 펜션시설 소방안전 컨설팅 실시

2020년 08월 20일 (목) 11:30:48

이한나 기자 ✉ feelfelt@hanmail.net



[여주=팔당유역신문] 경기도 여주소방서(서장 염종섭)가 지난 19일 북내면 소재 ‘숲을 그리다’를 방문하여 펜션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과 운영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현장 확인행정을 실시했다.

이날 안전컨설팅은 긴 장마가 끝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여름휴가 성수기 여행수요가 국내로 집중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민박·펜션의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마련됐다.

염종섭 서장은 현장행정을 통해 운영자에게 “이용객이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여주소방서는 소규모숙박시설인 농어촌 민박과 글램핑 야영장 등 66개소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.

© 팔당유역신문(<http://www.hanaronews.kr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